

文대통령 'K-반도체 전략' 보고...10년간510조이상투자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기지 기대감...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주도 의지

"준비된 미래, 반도체 강국"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한반도에 세계 최대 최첨단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앞으로 10년간 우리 기업들이 510조 원 이상을 반도체에 투자하고, 정부가 시설투자 및 세액공제 확대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련 국무위원들이 총출동했다.

행사에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의 대대적인 투자발표와 함께 산업부 장관이 민간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고, 세계 최대의 글로벌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 및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전략을 발표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페스, 리벨리온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2021년부터 30년까지 10년간 총 '510조원+' 이상 규모로 대대적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의 대규모 투자가 자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K-반도체벨트 조성, 세제·금융·규제 개선 등 투자 인센티브 제공, 인력 양성·기술 개발 등 성장 기반 확충 등을 속도감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세계 1위인 메모리를 넘어서 시스템반도체 및 소부장이 결합된 종합 반도체 벨트 완성을 위해 △소부장 특화단지(용인) △첨단 장비 연합기지(화성·용인) △첨단 패키징 플랫폼(중부권) △팹리스 벨리(판교)를 중심으로 국내 공급망 취약점을 보완한 세계 최대 규모 K-반도체 벨트 조성 계획을 밝혔다.

또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는 물론 양산시설 확충 촉진을 위해 핵심 전략기술을 신설해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대폭 강화(R&D 최대 40~50%, 시설투자 최대 10~20%), 1조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신설 등 금융 지원 강화,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등 규제 합리화, 우수물량 확보, 송전선로 구축 및 폐수 재활용 R&D 지원 등을 제 공기로 했다.

아울러 인력·시장·기술 등 반도체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 등을 통해 2031년까지 반도체 산업인력 3만6000명 육성, 반도체 전·후방 산업 연대·협력 생태



계 구축, 차세대 전력 반도체, AI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반도체 산업 생태계 및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반도체 산업 여건·주요국 반도체 입법

동향 등을 토대로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차량용 반도체 관련 단기 수급 안정화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미래차 핵심 반도체 개발을 위한 협력 모델을 발굴·지원하며, 국가핵심기술 지정 및 범정부 협업체 구축

확대를 통한 기술안보 강화도 추진한다.

이날 행사에서 특히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해 △차량용 반도체 수요·공급기업 간 연대·협력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민관 투자 △첨단장비 클러스터 투자 등 3건의 협약을 체결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4년 동안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해 시스템반도체를 미래차·바이오와 함께 3대 중점산업으로 정해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고, 메모리반도체 포함한 반도체 산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왔다.

특히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 재편, 차량용 반도체 등 품귀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업계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에 세계 인센티브 개선, 규제 완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는 비상경제중대본,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등을 거쳐 K-반도체 전략을 수립했고, 이를 국민들에게 보고하기 위해 기업 투자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이같은 일련의 행보는 한 달 내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

이번 행사엔 정부, 반도체 기업, 수요기업, 대학·유관기관 등 70여 명이 참석하였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소자 기업뿐만 아니라, 실리콘웍스 등 팹리스 기업, 네페스 등 패키징 기업, 현대자동차 등 수요기업, 서울대·연세대·반도체협회 등 반도체 관련 대학·유관기관 등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주역들이 모두 자리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는 국내 제조업 투자의 45%,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제1의 산업으로 최대 규모 투자를 통해 한반도 중심에 세계 최고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주체들 간의 연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투자의 적기 이행을 위해 정부는 K-반도체 벨트 조성, 세제·금융·규제 개선 등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반도체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상황을 고려해 손소독, 발열검사 등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진행됐다.

최광수기자

[칼럼]소탐대실자초하는 일본의 자충수

이웃나라 일본은 과거나 지금이나 하는 것이 잔머리는 좋은데 안목은 짧은 편으로 보인다. 국가 간 협상으로 위안부 보상과 강제징용이 끝났다 치자.그렇더라도 무릎 조아리며 사죄하는 척만 해도 세계의 이목은 누구 손을 들어줄까. 수출 통제로 한국경제를 조을 게 아니라 너그러운 태도로 국제무역의 개운도를 넓혀 인심을 얻는다면 당장은 속을 끓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떤 일을 해도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진대 조상들이 과거 하던 행태의 피가 흘러서인지 눈앞에 손익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쓸데없이 독도 분쟁 론이나 만들어내 손에 쥘 것도 없이 소란만 피우는 걸 보면 확실히 역사의 깊이는 속일 수 없는 것 같다. 일본이 앞서 어필한 것처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었다면 지금까지 후쿠시마 해양오염수를 방출하던 연일 확산되는 코로나19의 확진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을 강행하던 무리 없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국제사회는 눈이 없고 귀가 없었던가. 백신 확보에 열을 올리는 선진국들이 과연 감염 우려가 심해지는 일본도 교류리피기로 선수들을 보낼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10년 전인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쓰나미로 폭발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결정했다. 이를 두고 최근 한국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일본은 인접국인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시민들에게 전혀 납득의 과정 없이 일방적인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해양생태계 파괴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명주권을 지키기 위한 한국민들의 자발적인 요구는 일본 당국의 해명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핵종 총 46가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마셔도 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골수암, 백혈병, 갑상선 암 등에 치명적인 탄소-14, 스트론튬-90,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와 같은 방사성 물질들이 다 나온다는 학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자력기구나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는 되레 일본의 오염수 유출을 지지하고 있는 편이다. 전 세계 해양 인접국가중 어느 나라의 피해가 가장 클까. 물론 한국이다. 안그래도 납비축성이 강한 한국인들이 당장에야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큰 어류에 대해 두려움을 갖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화려한 홍보와 함께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안전한 수산물을 왜 일본은 안 먹고 제3국에서는 수입하지 않으며 한국만이 소비국이 되어야 할까. 바다 건너편 미국의 국무장관 블링컨은 일본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여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표현했다.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핵

실험과 핵 항공모함, 핵 잠수함 등으로 지구 곳곳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킨 나라가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것은 팔이 안쪽으로 굽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더 도둑도 말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입장 바꿔 울진 앞바다에 고리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생겨 해양오염수를 방출할 수밖에 없다고 치자. 어떻게 될까. 아마 온갖 난리를 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진정한 내로 남불이란 이런 경우가 아닐까. 해양 오염수 방출이란 특정 지역에 방사능 폐기물을 묻고 수백년 작을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5대양에 흐르는 해류에다 풀어 놓는 것이다. 이제 2년 후부터 125만여 톤의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버리겠다는 것이며 하루 평균 140톤씩 증가하는 점을 감안 할 때 악몽 하나가 아예 동네 우물에다 오줌, 똥 싸는 격이다. 우리 국민들은 그걸 밥상위에 올려놓고 먹어야 하며 언제 어떤 희귀병의 원인이 될지 알 수도 없는 불확실한 임상결과에 위로 받을 수 없는 살아야 할지 모를 일이다. 총량의 규제 없이 대규모로 장기간에 걸친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방사능 물질을 해저 토양과 생물에 축적되어 해양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바다로부터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과 해산물로 먹거리를 공급받는 한국 입장에서는 죽어라 반대를 외치는 게 맞는 것이다. 문제는 온 국민이 제 아무리 거품 물고 떠들어도 일본 정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 말고 저러는 행태는 말릴 국가도 없지만 누가 말려도 듣지 않을 기세다. 대책이 없을까. 감염 확산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이 추진되는 경우도 이번 오염수 유출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과 외교부가 모든 채널을 가동하여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북서쪽으로는 중국의 황사가 바다 쪽으로는 일본의 오염수가 한반도를 괴롭히니 무슨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남한만 바다인가. 북한 의 바다도 오염에서 자유롭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북한에서도 이쯤 되면 평소 눈엣가시였던 일본한테 으름장 정도라도 놓는 게 한민족의 동질감을 키우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그것도 아니면 오염수를 장기간에 걸쳐 저장하고 처리하면서 방사능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을 택하든가, 당장 피해를 막아야 할 한국이 일본과 협력하여 저장 탱크 증설과 고체화 방법이라도 돕던가 해야지 멀거니 있다가 밤상으로 올라오는 물고기를 먹을 때 마다 방사능 수치 검사라도 해야 하는 것인가. 계속 두고 보고 말로만 떠들 것인가. 일본은 이럴 때 친분학적 비용이 들더라도 오염수 가두고 환경보호를 외쳤다면 더 많은 국익이 돌아가지 않았을까. 소탐대실이다.

덕암/김국식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개최

소병훈 대표의원, "토지 소유자와 토지 비소유자 간의 경제적 불평등 심화", "양극화 현상 해결을 위한 새로운 과세 방법 '기본소득토지세' 필요"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은 12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남훈 교수 (한신대 경제학과)사회로 △오동석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자로, △김신언 박사 (서울지방세사무회 연구이사) △박상수 부원장 (한국지방세연구원) △남기업 박사 (토지+자유연구소 소장)가 토론자로 나섰다.

오동석 교수는 '기본소득토지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발제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와 '균형 있는 국민경제에서의 적절한 소득의 분배'(헌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적정 수준의 '충분성'을 기본소득의 개념 요건에 포함하면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는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 개념 정의(요건)에 포함하는 문제와 실현하는 과정의 문제는 다르다"며, "단계적 개선을 이유로 전면적용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 합의' 미비를 이유로 하여 객관적인 기준의 설정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또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기본소득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지속적 확장성과 상향화에 따라 입법 개선의 의무를 확보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수준이나 행복추구권의 행복의 기준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떠넘기며 매우 소극적이거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의 원천이 국민의 인권



과 주권이기 때문에 "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 불평등의 심화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와 '균형 있는 국민경제에서의 적절한 소득의 분배'(헌법 제119조제2항)의 '침해'이고,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로써 그 침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담보 상황이라면 국가는 기존의 제도를 개혁하든지 새로운 제도를 찾아야 한다"며, "'기본소득토지세법'의 헌법적 의미는 '적정한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확보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다"라고 진단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상수 부원장은 기본소득토지세가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토지를 인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점에서 대해 "현행 부동산 보유세의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로 인해 납세의무자는 보유세 절감을 위해 종합합산토지에서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토지로 전환하려는 유인이 있다"며,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는 토지 용도별 과세 불형평을 제거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한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 토지로 전환하면 세부담이 낮아지므로 용도별 세부담의 차이를 초래하고, 투기목적의 토지보유를 억제하기 어렵다"며,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는 토지 보유비용을 대폭 늘림으로써 '과다한 토지보유의 억제'와 '토지 소유의 저변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기업 박사는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국토에 대해서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어, 토지에서 발생하는 가치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해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 토지세가 도입되면 국민 대다수의 강력한 동의와 지지

를 받으면서 보유세 강화, 부동산 투기차단, 부동산 불평등 해소가 상당 부분 가능하다"며, "기존의 종부세와 재산세는 '부담'을 통해서 투기를 차단하는 것이라면, 기본소득형 토지세는 '혜택'을 부여해서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정책 대안이다"고 강조했다.

김신언 박사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현행 보유세 체계와 차별화 할 수 있는 토지 이익증가분에 대한 과세체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역차별성문제 등 불로소득 환수 목적에 맞는 과세표준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토지 자산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와 토지 비소유자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현재의 토지 과세로는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행 토지세의 문제를 극복하고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과세 방법인 '기본소득토지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기본소득토지세'의 타당성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 기존 토지 관련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의 실질적인 과제도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서면 인사말에서 "토지는 대표적인 사회 공유부로, 토지는 어느 개인이 만들어 낼 수 없으며 어떤 경제활동도 토지와 무관하게 이뤄질 수 없다"며, "기본소득토지세는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정당한 제안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이 제안의 구체적 가능성이 살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김병욱 의원,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대표발의

효율적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위원회 조직 및 전략 수립·점검체계 도입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오는 12일 국가지속가능 발전목표(K-SDGs)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국제연합(UN)은 1992년 '리우선언',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선언',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을 통하여 모든 국가들이 경제성장·환경보전·사회발전의 균형과 조화·포용적 사회를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지속가능 발전 전략 등을 수립·시행하였으나,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일반법인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으로,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속으로 각각 격하되었고 지

방 추진체계가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지속가능발전법」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위원회 조직 및 전략 수립·점검체계를 수립하는 내용과 지역·기업·기관·학교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지방전략을 수립·시행해 왔었지만,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요체가 흡수되며 사실상 폐지되었다"며, "이번 지속가능발전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법적 지위·체계와 지방거버넌스를 복원 및 격상하고, SDGs의 법적 근거 및 관련 시책을 규정하는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인제군의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제군의의회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당해 예산안을 심사하였다.

조준식 의원은 해외유입 관광객, 외국인 근로자 등 통계에 잡히지 않

는 부분에 대하여 센터와 적극 협력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다.

이춘만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관련하여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김상만 의원은 인제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에 관련하여 인제군 낙시협회 등 우수 인력



을 확보하여 대상자 지원에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였다

이원기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회장 문기주/부회장 박무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치부: 내선 (112) 문화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가50146 사회부: 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제부: 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방부: 내선 (119)
편집국: 02)2612-2959
팩 스: 02)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도민에게 행복을 드립니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

경기도의회가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2021 성북구우리동네절전왕에도전하세요!

전기사용량 가장 적은 40세대 선발해 5만원 상당 에너지 절약용품 지급

2050 탄소중립의 시작
우리 동네 절전왕에 도전하세요!

신형기간 2021. 5. 17(월) ~ 6. 18(금) * 선착순 400세대 접수

신청자격	성북구 거주 세대 * 전기사용량 조사를 위해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가입 필수	평가기간	2021년 6월 ~ 2021년 8월(하절기)
신청방법	참가신청서 제출 (성북구청 홈페이지 구청서신 접수) ! 제출방법! 우편 / 방문 : 성북구청 환경과 이메일 : imss3634@sb.go.kr 팩스 : 02-2241-6551	평가방법	신청세대를 가족 수에 따라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전기사용량이 가장 적은 총 40세대 선발(상상 예정)
		결과발표	2021. 12. 1(수) 이후 성북구청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상상계획	5만원 상당의 에너지 절약용품(총 40세대 예정) * 모든 참가자에게 에너지 절약 용품(3구 알타임) 1개 지급
		문의사항	환경과 기획협력대응팀 02-2241-3014

eb 성북

성북구가 '2021년도 우리 동네 절전왕'을 선발한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청 세대를 대상으로 전기사용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참여 신청자 중에서 가족 수에 따라 구분해 평가결과 전기사용량이 가장 적은 40세대를 절전왕으로 선발한다.

절전왕에게는 5만원 상당의 시상품(에너지 절약 관련 용품)을 증정한다.

또한 모든 참여자에게도 기념품으로 '절전형 멀티탭'을 증정해 에너지 절약 실천을 장려할 계획이다. 결과 발표는 오는 12월 1일 이후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북구는 한편 2013년부터 '우리 동네 절전왕'을 선발해왔다.

했고, 지난해 절전왕으로 선발된 가정의 월평균 전기사용량은 137kWh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북구 가정 월평균 전기사용량의 절반 수준으로 조사됐다.

성북구민이라면 누구나 '2021년 우리 동네 절전왕'에 참여 가능하다. 참여시 에너지사용량 조사를 위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절약하면 마일리지 주는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제에 필수로 가입해야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성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성북구청 환경과로 우편 또는 방문신청하면 되며, 이메일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자신만의 에너지 절약 방법이 있거나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고자 하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람이며, 에너지 절약 문화가 널리 확산되고 온실가스 없는 성북을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강성원/기자

금천구, 국토부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 선정



금천구는 국토교통부의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 '서울독산주공13단지 복지시설·공동홈 복합건립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지는 금천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복지·주거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독산1동 분소지역 한내 복지관 옆 체력단련장 부지이다.

구는 이곳에 구비 72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지하1층~지상7층, 연면적 2,314㎡ 규모의 공공요서비스를 위한 복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난 3월말 국토교통부 고령자복지주택 공모 접수 후 4월에 제안서 평가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전국 11개 지자체가 선정되었으며, 서울시에서는 금천구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구는 이번 공모를 통해 구 사업비의 37%를 국비로 확보, 2021년 하반기 착공,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고령자복지주택은 저소득 어르신들이 주거지에서 편리하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층부에 고령자 친화형 사회복지시설과 상층부에 임대주택이 복합 설치된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이다.

주거시설 내부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안전손잡이, 문턱제거, 낮낮이 조절 세면대 설치 등 무장애(Barrer-Free)설계가 적용된 고령자 친화형으로 건립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주거와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의 고민을 해결하고,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구 예산 절감은 물론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보건소 보건건의료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미성/기자

노원구 상계동에 들어설 다목적체육시설...상계구민체육센터 착공!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과 공동육아방, 아이휴센터 등 돌봄 공간으로 구성

서울 노원구 상계동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인근에 다목적 체육시설인 '상계구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상계동 95-182 일대에 들어설 상계구민체육센터는 지하3층, 지상6층에 연면적 4177㎡ 규모로 올해 5월 공사를 시작해 2023년 상반기 완공 예정이다.

센터가 위치한 상계3.4동 일대는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다 문화·체육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체육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다.

2014년 주택 재정비 사업 지역으로 인가되어 지난해 1163세대가 입주하는 공사가 시작된 상계6구역 조합은 구청과 협의에 따라 체육센터를 신축해 구에 기부하기로 했다.

체육센터는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돌봄과 주민 편의시설 등도 함께 조성해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층별 주요 시설을 살펴보면 ▲ 먼저 지하3층(309.09㎡)은 저수조, 기계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지하2층(724.75

㎡)에 수영장 시설이 들어선다.

▲ 지하1층(673.33㎡)은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지상1층(235.33㎡)에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동육아방을 마련한다.

▲ 지상2층(545.64㎡)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시설인 아이휴센터로 조성한다. 빨래방과 휴게실 등의 편의공간도 들어설 예정이다.

▲ 지상3층(547.18㎡)은 다목적실과 회의실 등으로 구성하고, 지상4층(546㎡)은 기구 필라테스, 헬스장, GX룸 등의 체육시설로 활용한다.

▲ 지상5층(545.11㎡)에는 다목적 강당이 위치하고, 지상6층(51.31㎡)은 전기실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현재 노원구는 월계구민체육센터와 중계구민체육센터 2개소를 운영 중이나 많은 인구수 대비 체육시설 확충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올해 상반기 수락산 스포츠타운과 상계구민체육센터를 착공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공릉구민체육센터가 착공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어울림



체육센터'와 '강북권 제2학생체육관' 건립도 추진 중으로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주민들은 가까운 생활권 내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생활체육은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최고의 복지"라며 "앞으로도 문화·체육·복지 등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강동구·하남시 GTX-D노선 공동유치위원회, 'GTX-D 강동~하남 연결촉구, 국토부 항의방문'

강남~잠실권을 거쳐 강동구를 경유하는 노선이 반영되도록 촉구

강동구는 12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강동구·하남시 GTX-D노선 공동유치위원회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초안에 GTX-D(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이 '김포 장기~부천중합운동장' 구간에만 건설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항의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정훈 강동구청장, 김상호 하남시장 및 주민대표로 구성된 '강동구·하남시 GTX-D노선 공동유치위원회' 20여 명은 12일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청사 입구에서 GTX-D노선 김포~부천구간 축소에 항의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의 강동구·하남시 경유 반영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난을 해소할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김포 장기~부천중합운동장' 구간으로 대폭 축소될 계획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라며, "GTX-D노선의 강동구·하남시 유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강동구는 GTX-D 강동구 경유를 위해 2020년 3월 ~ 8월 주민서명운동을 실시, 10만 명 이상의 주민 동참을 이끌어냈으며, 자체적으로 강동구 GTX-D 도입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국토교통부에 GTX-D 강동구 경유를 건의해 왔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국토부의 축소 발표는 GTX 사업이 지향하는 수도권 균형발전과 도시공간의 압축효과를 크게 떨어뜨리는 동시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건넌 것이다"라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가 그 의미를 잃지 않도록 국민적 염원을 담아 노선을 재조정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황규석/기자



'송파에서 일 구하는 날'... 취업성공 '일구데이' 개최

4개 기업 80여명 구직자 참여, 1:1 대면·화상 채용면접

송파구는 14일 오후 3시부터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취업성공 일구데이'를 개최한다.

'일구데이'는 '일자리를 구하는 날'이라는 뜻으로,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사전 매칭해 현장에서 면접과 채용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채용박람회다.

송파구는 지난해에도 총 3회의 '일구데이'를 개최하여, 60명이 일자리를 얻는 성과를 냈다. 특히 민간과의 협업 하에 정보보안 분야 우수기업을 발굴했고, SK인포섹㈜, ㈜안랩 등에 11명이 전문 직종으로 취업에 성공하였다.

이번 '일구데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규모로 진행된다. 생산, 피킹, 급식보조, 간호사 등의 분야에서 4개 기업의 인사 담당자와 사전 매칭한 구직자 80여 명이 1:1 면접을 실시한다. 또한 일부 희망자

에 대해서는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리모트미팅'을 활용해 비대면 화상 면접을 병행한다.

향후에도 송파구는 '일구데이' 참가 기업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송파 일자리센터에서 구인·구직을 등록하고 취업 알선, 고용유지 등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송파구청 일자리정책담당관 또는 송파일자리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수 구청장은 "이번 '일구데이'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다양한 취업 지원정책을 실시해 일자리가 창출을 통한 경제 활력도시 송파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정동희/기자

서울을 이끄는 송파

2021. 송파구 취업성공 19데이

2021. 5. 14. 송파구청 대강당

구인·구직을 위한 취업박람회	기업 인사담당자와 1:1 대면 또는 화상 채용면접			
주요 기업	기업명	면접내용	채용인원	분야
SK인포섹	정보보안 분야 우수기업	정보보안 분야	10	소프트웨어
안랩	정보보안 분야 우수기업	정보보안 분야	5	소프트웨어
SK인포섹	정보보안 분야 우수기업	정보보안 분야	5	소프트웨어
안랩	정보보안 분야 우수기업	정보보안 분야	5	소프트웨어

취업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 접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신청자에 한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면접 취직자는 송파구청 채용정보, 취업유지 등 소규모 취업지원센터에서 취업성공을 축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청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최·주관 | 송파구 서울동부 구용복지센터 문의 | 송파일자리센터 02)2147-3680-4

차준택부평구청장, 청년창업자들과소통의장마련유유기지부평서

‘청년창업자네트워킹데이’진행

차준택 부평구청장이 지역의 청년 창업자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12일 부평구에 따르면 차준택 구청장은 지난 10일 청년공간 유유기지 부평에서 청년 창업자 및 창업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과 함께 ‘청년 창업자 네트워킹 데이’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부평지역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한 ‘청년 창업 재정지원 사업’을 돌아보고, 청년 창업자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창업 애로사항과 경영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청년 창업자 간 자율적인 네트워킹을 시작으로 청년 창업 재정지원 사업 경과보고, 지난해 선정된 청년 창업기업 ‘월드킷’의 6개 업체의 주요 성과 발표, 질의답변

및 건의사항에 이어 전문가의 현장 피드백으로 마무리됐다.

차준택 구청장은 “부평구의 청년 창업 재정지원 사업이 벌써 3년차에 접어들었다”며 “사업에 참여한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교류해서 서로 간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평구는 오는 25일부터 ‘2021년 청년 창업 재정지원 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을 진행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지역 내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1년 미만 창업, 또는 예비창업)는 부평구청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판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거나 구청 일 자리창출과로 문의하면 된다.

변재현/기자



인천시, '2021년 상인대학' 운영

전통시장 등에 대한 정부지원정책 안내 및 사업계획 컨설팅 실시



인천광역시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 도시재생사업을 이끌 지역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동인천역 상인대학 교육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전통시장(상점가) 상인의 기본 역량 강화 및 상인들이 지역의 주체로서 지역문제를 파악하고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공감,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소통하는 대화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나아가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을 안내하고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를 위해 4. 19일부터 4. 28일까지 주민협의체 회원(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을 대상으로 모집공고 및 수강신청을 통해 50명의 수강신청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30명 가량을 대상으로 5주 20시간 과정의 프로그램을 5. 17. ~ 6. 17.까지 동인천역 미림극장 2층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유통환경변화와 대응, 상인정신과 의식혁신, 상인조직 활성화, 고객관리, SNS마케팅, 정보지원정책과 안전관리 등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선진시장 견학을 통해

변화된 성공사례를 체험, 상인들의 변화의지를 북돋는 동시에 정부지원정책 안내 및 분야 전문가의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예: 특성화첫걸음기반 조성, 시장경영바우처지원)을 지원하여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시는 또 상인대학 이후 동인천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목표와 세부 전략 수립을 위해 ‘동인천역 주변 상권진단 및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①상인의식 및 조직역량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 ②상인조직화 및 전통시장, 골목상권 분석·컨설팅 지원 ③ 도시재생사업(하드웨어) 추진과 함께 상인조직(휴먼웨어), 고객서비스·경영(소프트웨어)의 균형적 발전전략을 단계별로 수립을 골자로 연내 밀그림을 완성한다.

최두승 시 주택복지국장은 “이번 2021년 동인천역 상인대학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상인들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변화, 혁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어 하반기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동인천역의 부활을 위한 실질적인 과제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이동진 도봉구청장, '3080+ 주택공급대책' 선도사업 후보지 방문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5월 12일 도봉구청 관계 직원, 주민 대표들과 지난 3월 발표한 국토교통부 제1차 위클리 주택공급 선도사업 후보지 중 도봉구 선정지역 7곳을 둘러보고 사업추진 현황을 살폈다.

도봉구의 사업 후보지는 역세권(3곳) △방학역 인근 △쌍문역 동측 △쌍문역 서측, 준공업지역(2곳) △창동 674일대 △창2동 주민센터 인근, 저층주거지(2곳)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방학2동 방학초교 인근을 포함한 총 7곳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도봉구는 지난 3월 31일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발표한 서울시 4개 자치구 중 첫 번째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쌍문1구역(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이 예정지구 지정 동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정부의 ‘공공주택 3080+ 주택공급 확대정책’에 적극적으로 조처해 오고 있는 중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3080+



주택공급방안은 주택공급과 함께 생활SOC를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한다.”며, “성공적인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구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하고, 주민

참여를 돕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강동구, 맛있는 연구소에서 외식업 창업을 꿈꾸세요

오는 15일까지 외식업 예비창업자 1,2기 교육생 총 12명 모집

강동구는 ‘공유주방 373 맛-랩(Lab)’에서 외식업 창업을 꿈꾸고 나만의 식당을 열고 싶어 하는 창업자에게 기본 요리와 창업 교육을 제공하는 ‘외식업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맛있는 연구소를 표방하는 공유주방 373 맛-랩은 외식업 (예비)창업자에게 음식 관련 새로운 시도와 경험을 지원하는 외식업창업 지원공간으로써 강동구 구천면로 373에 있다.

이곳에는 주방설비, 집기류 등이 비치되어 각종 메뉴 개발과 연구, 조리실습, 품평회 등을 실현해 볼 수 있다. 구는 향후 지역 특화음식 개발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외식업 전문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18일(화)부터 외식업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1, 2기가 시작된다. 프로그램은 외식업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6월 15일까지 매주 화요일 수업이 있다. 내용은 소외지역 창업의 기본, 소규모 기초 및 메뉴실습 △온라인 홍보 및 운영방법 등을 주제로 이론과 실습 교육으로 구성됐다.

1. 2기 모집인원은 기수별 6명, 총 12명이다. 외식업 창업에 관심 있는 강동구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오는 15일까지 강동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전화, 이메일, 현장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외식업 환경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지고 있

강동구청 공유주방 373 맛-랩과 함께하는

외식업 전문성 강화 교육

수업 내용	모집인원
1. 외식업 창업의 기본 익히기 -이론 중심에 여타 어떻게 할 것인가	모집인원 기수 당 6명 / 총 12명
2. 주류 이해 및 수제맥주 제조 수업 -유리기에 맞는 유리 술 8기	모집대상 강동구 거주 예비 창업자 외식업 관심이 있는 강동구민
3. 외식업 요리 기초 및 메뉴 실습 -달달타이 미스터리	수업인원 기수 당 5명 / 매주 화요일
4. 전문요리 전수 -정 말리는 메뉴 배양기	17. 27. 2021.05.18 - 06.15 3기, 4기 2021.06.29 - 07.27 5기 2021.08.17 - 09.14 (18, 37)는 오전형 / 2, 4, 5)는 오후형
5.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내 가게는 내기 홍보하기	신청방법 공유주방 373 맛-랩 방문 / 전화 / 이메일

강동구 임시동 구천면로 373 1층 공유주방 373 맛-랩
문의 ☎ 02-3426-3737 / 373matlab@naver.com

다.”라며 “373 맛-랩(Lab)이 새로운 변화와 환경에 대응하여 외식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써 주민들에게 희망과 활력의 공간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사회경제과 또는 373 맛-랩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규식/기자

미추홀구 마을활동가와 비대면 '소통로드21'

천 미추홀구는 12일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미추홀 지역 8개 동 마을활동가와 골목골목 현안사항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약 1시간 동안 비대면으로 진행된 만남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골목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마을활동가들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진행될 골목 특성화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행정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평소 미추홀구 문화유산과 문학산 역사관 해설사와 함께 말벗 독서동아리 공동체에서도 활동해 온 송의4동 마을활동가는 우량 공동체에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정식 구청장은 연속지원을 제한

했던 일몰제가 폐지된 만큼 반복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평가 등을 거쳐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밖에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도화2.3동, 주안1동, 주안6동 참여자들은 동별 특색을 살린 다양한 마을활동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다소 부족한 부분은 관련 기관이나 부서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김정식 구청장은 “화상회의 방식의 비대면 소통로드21에 각 동마다 소중 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가능한 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앞으로 모두가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강화군, 강화대교 입구에 관문형 상징 조형물 만든다

강화군이 강화대교 입구에 역사 고도(古都) 관광도시 강화군을 상징하는 관문형 조형물을 설치한다.

군은 13일 유천호 강화군수, 신득상 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화대교 관문 상징조형물 설치사업’기공식 행사를 가졌다. 이번 기공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강화대교 인근에 48국도를 횡단하는 길이 40.2m, 폭 10.3m, 높이 11.5m (차량 통과높이 H=5.5m) 규모의 상징조형물을 설치한다.

강화읍성 동문의 망한루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상징조형물 외벽에는 LED 조명을 설치하고 미디어 기능을 구현해 강화군의 역사성과 역동성을 표현할 계획이다. 상징조형물

상단을 육교로 만들어 복원 중인 진해루와 공사 중인 ‘기독교 근대역사 기념관’을 도보로 연결한다.

미디어파사드 기술을 조합한 상징 조형물은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체류시간을 늘려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관문 상징조형물 설치를 위해 지난 2017년 8월과 2019년 7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지난해 1월에는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와 강화군원로자문회의 의견을 반영해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유천호 군수는 “오전 1년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아름다운 섬 강화도의 첫 관문을 강화읍성 동문을 모티브로



화려하고 역동적이며 한국의 선을 엿볼 수 있게 디자인했다”며 “상징조형물을 강화도의 전통과 미래를 연결하

는 대표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종남/기자

“도로파손안전위협”과적차량, 남양주시2차합동단속 실시

12일 남양주북부경찰서와 함께 진접읍 지역 도로변 단속

남양주시는 도로 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12일 남양주 북부경찰서와 합동으로 2차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진접읍 일원 도로변에서 도시관리사업소 도로시설관리과 직원 및 경찰 등 총 9명이 참여한 가운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관이 차량을 정지 유도하고 도로시설관리과 직원들이 이동식 축중기로 단속 대상 차량의 앞바퀴부터 뒷바퀴까지 차레로 과적 여부를 측정했다.

단속은 2시간가량 진행됐으며 과적 측정 대상 차량 대부분이 측정 지시에 순응해 원활하게 측정이 이뤄졌으나 일부 운전자들이 측정에 불응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현호권 도시관리사업소장은 “지난 1차 단속의 효과로 과적 차량들이 많이 줄었으나 아직도 일부 과적 차량이 적발되고 있다.”라고 밝히며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를 통해 과적



차량이 줄어줄 수 있도록 해 과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적차량 단속 대상은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과적운행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며, 단속에 적발되면 위반 정도에 따라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정근기자

당진시, 직업소개사업소지도·점검 나서

당진시는 이달 28일까지 관내 등록 직업소개사업소 95개소 및 미등록사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고 직업소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지도 및 건설업 일용직 종사자 자살예방 홍보가 함께 이뤄질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개수수료 징수 실태 ▲변경·폐업 신고 누락 ▲장부 미비지 ▲종사자 실제 근무 여부 ▲보증보험 기간 만료 ▲무허가업소 등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들이다.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행정지도 및 시정조치 하고, 불법행위 등 중대한 사항의 경우 등록취소와 과태료 처분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시 경제과 박상구 일자리지원팀장



은 “직업소개사업소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자가 법 준수사항을 숙지하도록 해 직업소개 관련 부조리를 예방

하고, 건전한 고용시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울산해경,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집중단속

울산해양경찰서(서장 박재화)는 성수기를 맞아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 조성을 위해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5월 해양레저활동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일부 해양레저동호회를 중심으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을 이용한 레저활동들이 주거시설과 가까운 해안에서 과도한 소음으로 인근주민 및 행락객과 마찰을 빚는 일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안전계도를 실시함과 동시에 법과 규정을 위반한 레저활동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울산해경은 5월 12일부터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집중단속 예정이며,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행, 미등록 영업행위, 보형 미가입, 안전검사 미수검, 정원초과 등 안전

과 직결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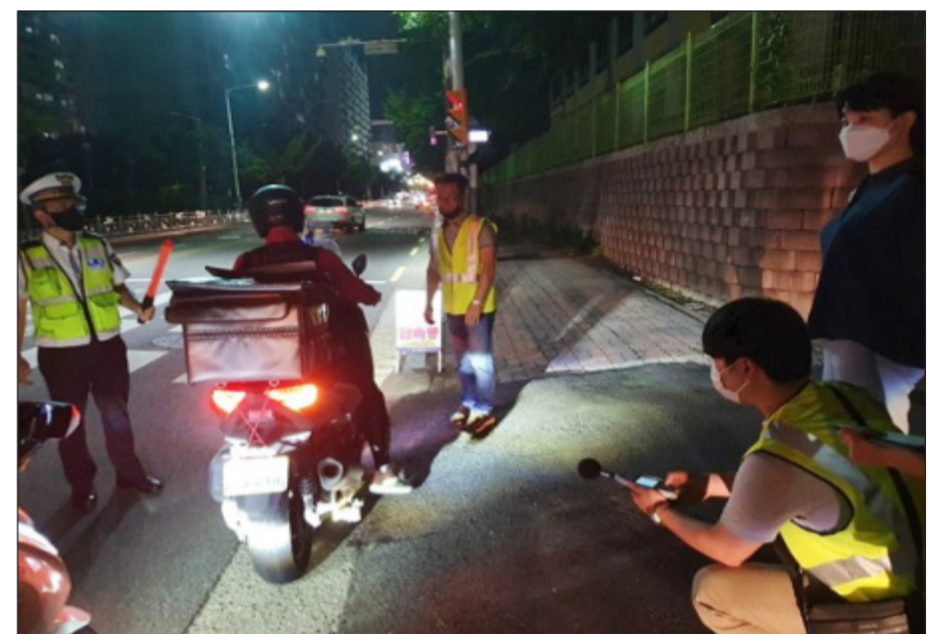
또한, 야외 레저활동에 대한 관심 증대로 낚시레저 및 카약투어 활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장을 방문하는 이용객의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등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자 및 활동자 대상 안전의식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 및 사고 다발지역을 선별하여 집중단속,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안전규정 준수가 해양사고를 막는 첫 단추임을 강조하며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자와 이용객의 자발적인 실천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김해시·경찰서, "오토바이 소음 합동 단속" 실시



김해시는 김해 중·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6월말까지 굉음을 발생시키는 불법개조 오토바이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배달앱과 배달대행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라 생계형 배달 오토바이가 증가하고 있으며 빠른 배달을 위한 과속질주와 소음 관련 불편민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결과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는 소음·진동관리

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불법 개조한 부위는 원상복구토록 하여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명령할 방침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오토바이 소음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오토바이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번 합동 단속으로 이륜차 동차 소음 발생을 저감하여 시민들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불법 오토바이 운행이 근절되도록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남궁영기자

방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90개 채팅앱 사업자 수사 의뢰

방송통신위원회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90개 대화형(채팅) 앱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이러바 ‘렌터카채팅 앱’으로 알려진 대화형 앱 서비스 중 일부 앱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운영한다는 국회 등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가 대화형 앱 277개(189개 사업자)에 대해 점검한 결과, 157개(111개 사업자)의 앱에서 위치정보 접근권한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 중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는 90개 사업자에 대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 하였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에 대해 위치정보사업 허가·신고 여부,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여부 등 위치정보법 준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양양군, 공중화장실 내 금지행위 강력 단속 나선다

양양군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내 금지행위 단속에 나선다.

군은 캠핑을 즐기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공중화장실 내 수도·전기 시설의 무단사용과 쓰레기 투기, 시설물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물치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등 11개소에 대해 공중화장실 내 주요 금지행위인 ▲화장실 내 흡연 ▲시설풀(전기, 수도 등) 무단사용 ▲세탁, 샤워 등 유사행위 ▲흡연 ▲음식물 쓰레기 등 오물 반입 행위 등을 단속한다.

군은 이처럼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현장

확인을 통한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안심벨을 설치하고, 불법촬영 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보유중인 전자렌즈 탐지 장비를 활용해 속조경철서 등의 관련기관과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 등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내 공중화장실은 54개소, 개방화장실은 78개소로 공공기관 화장실, 해변 화장실 등을 포함해 총 132개소이며, 군은 관광객에게 관광지의 쾌적한 이미지 전달을 위해 수시 점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용객 스스로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 이용을 위



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계양구,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인원광역시 계양구는 지난 12일 구청 주변 상가밀집지역에서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량 출동 지연을 방지하고 인명구조, 화재진압 등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구청 주변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에서 계양소방서와 함께 진행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위반사항 합동단속과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계도방송 등을 실시했다.

특히 이 지역은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곳으로 계양구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민 계도,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실시해 주차 질서 확립, 불법 주정차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화재 시 소방차 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소방통로 확보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변재현기자

이천시, '중부내륙철도(이천~충주)구간 112억 (가칭) '장호원감곡'역으로 심의 요청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이천-문경 철도건설(중부내륙철도)」1 단계 구간(이천-충주)의 10월 개통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 4월에 실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7대추진방향중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중부내륙선(문경-김천)과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연계사업이 발표되면서 향후 서울-거제간 이동시간이 4시간 30분에서 2시간 4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사업을 위해 2006년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고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무사 준공을 위해 국가철도공단과 함께해 왔다.

기본설계에 따른 구조물 협의를 통해 교량설치를 설계에 반영, 노선구조물계획 협의, 교량진입부분 협의, 112억과 역사위치 및 편의시설, 주차장 설치 협의등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도 국가철도공단과 장호원 연결 교량공사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하고 있다.

「112억(가칭)역사명 제정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12억(가칭)은 장호원읍과 감곡면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천시 장호원읍 노탑리 와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경계에 계획되었으며, 16년여간 장호원비상대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의 지속적인 협의와 논의를 거쳐 현재 최적의 112역사로 만들어 졌다.

112억의 '장호원감곡'역사 명칭은 2015년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장호원비대위간 합의에서 도출된 명칭으로, 112억(가칭)역사명 제정을 위해 올 2월 주민들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이천시지명위원회에서 '장호원감곡'역으로 최종 선정하

여 경기도를 거쳐 국가철도공단에 제출하였다. 현재 '21.05월 개최 예정인 국토교통부 역명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상정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천시 장호원읍은 수도권의 최동남쪽 외곽에 위치하면서 수도권전비계획 및 팔당상수원보호구역등의 각종 규제에 묶여 청미천을 사이에 둔 이웃도시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비해 국가개발계획에서 소외되어 왔다. 「이천-문경철도사업」은 장호원 시민의 서운한 맘을 한번에 씻겨줄 준비와 같은 염원이 담긴 숙원사업이다.

112억(가칭)은 이천시 남부권 유일의 역사로 장호원시민을 비롯한 이천시 남부권 시민 4만3천여명이 이용하는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이다.

이천시 담당자는 “국가철도공단에 112억(장호원감곡)역명 제정을 위하여 장호원지명유래, 개발계획자료,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한 내용등 역사명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과 함께 '장호원'명기의 당의성을 표명하였으며, 2015년 합의한 사항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말하였으며, “철도사업은 지역의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역사의 위치와 역사권 개발 사업은 해당 주민의 최고의 관심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결정으로 인근 지역 주민과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장호원감곡'역사는 특정 지역만을 위한 역사가 아니라 장호원읍과 이웃도시 감곡이 같이 이용하는 시설로 지역간 갈등대상이 아닌 두 지역이 상생하고 발전 기틀이 되는 상징적인 곳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2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 6월 30일까지 꼭 사용하세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기한 6월 30일. 이후 미사용분은 자동회수

경기도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기한이 오는 6월 30일까지라며 이전까지 사용을 모두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카드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며, 4월 1일 이후 신청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후 미사용분은 자동 회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음식점, 도소매점 등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이하의 매장 및 전통시장 점포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단,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사용가능한 곳을 확인하려면 지역화폐 가맹점 스티커 부착 여부를 살펴보거나,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해당 시군 홈페이지를 참

고하면 된다.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경기도의 경제방역정책이다.

지난 2월 1일 신청접수를 시작한 1주일 만인 7일 도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56.3%)이 신청을 완료할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

지난달 30일 온라인 신청(2.1~3.31)과 현장신청(3.1~4.30)이 모두 마감됐으며 도민 1,343만8,238명 중 1,305만 6,552명이 신청해 최종 신청률 97.2%를 기록했다. 신청인원 중 79.1%(1,032만3,003명)가 온라인으로 신청했고, 20.9%(273만3,549명)가 행정복지센터나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통해 현장 신청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1차와 달리 도내 등록 외국인에게도 지급됐다. 1월 19일 기준 도내 등록 외국인은 57만 681명으로, 1월 19일 전 체류기한 도



래자와 체류연장 심사중, 거주지 상이 등 신청불능자 등을 제외하면 실 지급 대상은 약 45만 명이다. 이 가운데 40만 7,632명이 신청해 신청률은 90.6%를 기록했다.

도 관계자는 “1천 원 이상 잔액 191만1천 건(822억4천만 원)에 대

해 사용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재난기본소득 사용을 독려할 계획”이라며 “6월 30일 이후 미사용분은 회수되므로 아직까지 재난기본소득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도민은 서둘러 사용해달라”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보건복지부 평가 5회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 권리 등 운영 사항 최우수 평가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광석, 이하 복지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20년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평가에서 5회 연속 최우수(A등급) 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3년마다 6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운영사항 등 점검을 하고 있으며, 이번에 평가를 받은 장애인복지관은 144개소로 기관 운영에 대한 사항을 ①시설, 환경 ②재정, 조직 ③프로그램, 서비스 ④이용자의 권리 ⑤지역사회관계 ⑥시설운영 전반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번 평가에는 전국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노숙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아동그룹홈, 장애인그룹홈, 정신재활그룹홈이 해당 되었으며, 총 1,745개소가 대상이었다.

1999년 설립된 복지관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즐거운 만남, 행복한 변화, 실천하는 복지관이라는 목적으로 총 54명의 직원들이 연 14,400여명(실인원)의 이용 장애인들을 위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복지관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위하여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사랑사랑(樂) 페스티벌, 사람사랑 동행나들이, 창공 페스티벌,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보육 지원, 장애인의 권익옹호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등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복지관 이광석 관장은 “지난 21년간 사람사랑의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을 펼쳐온 결과 지역사회와 장애인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평가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며 꼭 필요한 복지사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복지관은 안으로는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고 투명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다질 수 있도록 윤리경영과 정도경영을 실천하며 변화하는 장애인복지 환경 속에서 장애인

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원종균/기자

안산시, 서부권 순환버스 '맑은-green' 오는 17일



안산시서부권 도심순환버스가 오는 17일 오전 5시30분 첫차 운행에 나서며 정식 개통한다.

시는 13일 단원구 선부광장에서 서부권 순환버스 '맑은-Green' 개통식을 열었다. 이날 개통식에는 윤화섭 안산시장, 박은경 안산시의장을 비롯해 박태순 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민중기 ㈜씨클라인 대표, 시민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서부권 순환버스 '맑은-Green' 70A·B 노선은 전체 3개 순환버스 노선 가운데 두 번째로 개통하는 것으로, 앞서 지난해 12월 남부권 순환버스 '해양-Blue' 노선이 가장

먼저 운행을 시작했다.

이번 개통에 따라 서부권 순환버스 노선은 중앙역을 기·종점으로 동명(아)~초~초지역~고잔신도시~중앙역~안산종합여객자동차터미널(터미널)~다농마트 등 안산시 서부권을 순환한다.

첫차는 오전 5시30분, 막차는 오후 11시이며 총 10대의 버스가 배차대 편일 15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시는 이번 서부권 순환버스 개통으로 신·구도심을 연결하면서 전철역과 터미널로 향하는 서부권 주민의 신속한 이동을 돕고, 백운동, 선

부동 등 거주 주민의 출·퇴근 소요시간을 대폭 줄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화섭 시장은 “새롭게 개통하는 서부권 순환버스는 신·구도심을 연결하고 10여분이면 전철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 안산시 전역의 역세권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시민중심 교통혁명을 통해 교통편의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고 말했다.

동 부 권 순 환 버 스 ‘ 예 술-Orange’ 노선은 오는 6월 개통할 예정이다.

최정부/기자

양주 남면초등학교양덕분교장, 거리두기 속 모내기 체험활동 실시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속 체험활동

남면초등학교양덕분교장(교장 박홍익)은 지난 12일 교내에 조성된 논에서 모내기 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모내기는 남면초양덕분교장에서 10년째 이어져 온 친환경 먹거리교육의 일환으로 교내 논에서 진행하였다. 모는 분교를 졸업한 인근 가정에서 기증 받아 재학생들에게 뜻깊다. 지난 4일에는 미꾸라지를 논에 풀어 풍년을 기원하는 논밭가 행사를 실시한 상황이라 다가올 모내기가 더욱 기대 받고 있다.

본 행사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재구성하여 교실에서 사전교육을 받은 후 학년별로 모내기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모내기는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에 대한 사회적 우려로 인해 기존과 다르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운영하였다. 모내기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동 전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여부를 확인하고, 야외활동임에도 많은 인원이 밀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년별 시차를 두어 10명 미만으로 체험을 실시하였다.

한편, 양덕분교는 지난주 텃밭을 이용해 감자, 고구마, 옥수수, 고추, 쌈채소, 수박, 딸기, 땅콩 등 심어 학



년별, 계절별 특색에 맞는 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였다.

남면초양덕분교장 박홍익 교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활동의 기회가 줄어든 요즘 의미 있는 교육활

동을 준비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친환경 농법을 통한 학교농장가꾸기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광명시, '광명동굴' 역사와 평화의 공간 '광명평화동굴'로 재도약

유료화 개장 이후 6년여 만에 600만명 돌파

지난 4월 25일 국내의 누적 관광객 600만 명을 돌파한 '광명동굴'이 국내 최고 동굴 테마파크를 넘어 '역사와 평화의 상징, 광명평화동굴'로 새롭게 도약한다.

광명시는 12일 광명동굴 빛의 광장에서 '광명동굴 입장객 600만 명 돌파 기념행사'와 '광명평화동굴 도약선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박성민 광명시의회 의장, 양기대 국회의원, 시·도의원, 주요 기관 단체장, 광명도 시공사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진행됐다.

행사 1부에서는 광명동굴 관광객 600만 명 돌파를 기념해 600만 번째 입장한 가족을 초대해 기념품을 전달하고 축하했다.

이어 2부는 광명평화동굴 재도약! 선포식 행사로 광명평화동굴 비전영상 상영, 평화기금 조성 선언문 낭독, 광명평화동굴 선포 퍼포먼스, 축하공연으로 광명평화동굴로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광명시는 광명동굴 입장료 수입의 1%를 '광명시남북교류협력기금'에



적립해 평화와 상생을 위한 남북 협력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광명동굴 주변에 평화공원을 조성해 역사와 평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광명동굴은 1912년부터 1972년까지 금·은·동·아연을 채굴하던 수도권 유일의 광산으로 광명시가 2011년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해 현재의 대한민국 최고의 동굴테마파크로 변모시켰다.

광명동굴은 2017년, 2019년, 2021년 한국관광 100선에 3년 연속 선정됐으며, 2015년 4월 4일 유료화 개장 이후 6년여 만인 지난 4월 25일 600만 명 입장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5월에는 중국 기업 임직원 600명이 방문했고, 10월에는 개장 이래 최대 규모인 1050명의 중국 기업 임직원 단체 관광객이 찾아오는 등 국내를 넘어 외국까지 명성을 떨쳤으며, 지난해까지 총 20만2000여 명의 외국인이 방문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도 꾸준히 찾아와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오늘 이렇게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다"며 "광명동굴이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가 될 수 있기까지 열정을 갖고 지위를 아끼지 않으신 양기대 국회의원께 감사드리며, 광명동굴을 사랑해주는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광명동굴을 문화와 예술, 스토리,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관광지로 개발해 시민 여러분께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광명평화동굴 도약! 선포로 광명동굴과 함께 평화공존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희기자

평택교육지원청 평택기계공고, '시를 통해 헤어리는 삶의 지혜' 행사 개최

나태주 시인과의 만남

시를 통해 헤어리는 삶의 지혜

5월 12일(수) 7-8교시 / 茶樂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삼중야

카카오채널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신청해주세요! 댓글순, 30명 마감!

유퀴즈에 나오셨던 바로그분! 친필사인 책선물도!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교장 김광회)는 5월 12일 나태주 시인과의 만남 '시를 통해 헤어리는 삶의 지혜'를 진행했다.

나태주 시인은 150여권의 책을 출간하였고 '풀꽃' 시인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경력을 보면 초등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장학사, 교감, 교장 등 총 43년의 교직 생활 후 정년 퇴임하신 교육자다.

현재 공주풀꽃문학과관 관장으로 있으며 문인들이나 문학지방생들이 모여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람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나태주 시인은 이번 행사에서 '시를 통해 헤어리는 삶의 지혜'라는 주제로 사람을 울리는 시/ 사람을 응원하는 시/ 사람을 살리는 시, 이렇게 3가지로 주제를 나누어, 다양한 시를 소개하고 그 시를 통한 사람들의 삶과 지혜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시를 좋아하고 읽는가?'라는 질문에 '시를 읽고 시를 사랑하는 일은 우리 인간이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라고 답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이끌어 가고 멀리까지 안내하는 마음은 바로 '감성'이라고 말씀하시며 '감성'을 일깨우는 시 읽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임*정 선생님은 "평소에 나태주 시인의 '풀꽃'을 학급 게시판에 붙여놓고 학기 초에 학생들과 인사할 때 꼭 읊어주는데, 오늘 나태주 시인님의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박*준(2학년) 학생은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본 나태주 시인님을 직접 보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 앞으로 하루에 한 편씩 시를 읽고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겠다."며 다짐했다.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교장(김광회)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책을 가까이 하며 시를 비롯한 문학을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작가와의 만남 및 독서인문소양교육 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자 한다. 나아가 자유롭고 창의적인 미래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앞으로 독서인문소양교육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수원시 염태영 시장 "특레시, 새로운 발전 동력 될 것"

염태영 수원시장이 "특레시는 각자의 특색을 살리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당한 자치권한을 갖게 해 줄 것"이라며 "다른 지방 도시들도 별도의 특례를 갖고 인구소멸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고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12일 오후 7시40분 수원2049시민연구소가 주관한 '온라인 수원이야기-수요일엔 수원 공부' 대담에 참여해 시민들에게 특레시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염태영 시장은 "4개 특레시가 공동으로 421건의 사무를 발굴해 인구 규모에 맞는 행정서비스,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 추진,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연대하고 있다"며 "내년 1월13일 특레시가 출범하면 시민이 받던 차별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확실적인 지방자치제도를 벗어나 각 지자체가 멍치와 몸집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게 해 지자체가 국가균형발전이나 지방소멸 등에

대응하도록 다양한 형태로 자신만의 특례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100만 이상 도시에 행정사무에 대한 특례를 열어준 것이 그 첫 번째"라며 특레시가 다양한 형태로 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시민들에게 "특레시는 기존 행정체계의 틀을 깨고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며 "외형적 성장 뿐 아니라 실제적인 내용을 꼼꼼히 채울 수 있도록 내년 1월13일을 기대하며 새로운 발전 동력을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염태영 시장은 "최고위원으로 활동한 7개월여간 현장의 이야기를 중앙에 전달하고자 노력해 필수노동자 지원조례 등을 소개해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치는 절대로 온전히 설 수 없다"고 소신을 드러냈다.

특히 정치가 지방분권형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유력 정치인을 중심으로 하향식으로 이뤄지는 정치구조를 바꿔 풀뿌리



리 민주주의의 시작인 기초지방정치부터 다양한 정치신인이 발굴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과 만난 염태영 시장은 '생태교통 수원 2013 개최', '광교상수원보 호구역 갈등 해소' 등 다양한 성과를 일궈낸 지난 11년을 돌아보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동력삼아 수원시

발전의 결정적인 힘을 얻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한 대응에 대해선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당사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생략된 것은 아쉽다"며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충격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최준희기자



죽전역 에일린의 뜰

양산시 대통령 사저 관련 논쟁 일단락

양산시, 경호처, 하북면 비대위·사회단체 적극 소통 협력 해나가기로

양산시는 지난 11일 하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김일권 양산시장을 주재로 대통령 사저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간담회는 김일권 양산시장을 비롯한 하북면 사저건설 비상대책위원회 및 사회단체장, 경호처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사저 관련 시의 입장 표명, 비상대책위 및 사회단체 의견 정취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4. 23일 김일권 시장과 하북면 사회 단체간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사회단체에서 부작한 현수막을 누군가 철거했다는 이유로 반발 무산되었으나 김시장의 재요구로 이날 다시 개최됐다.

주민간담회에 참석한 하북면 14개 사회단체 및 비상대책위(위원장 정용구)에서는 대통령 사저관련 사전공청회 미개최와 건립반대 현수막 철거 건에 대하여 양산시장의 진정 한 사과 요구와 사저건립으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 및 향후 하북면 발전방안에 대하여 양산시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시장은 "사저 공사와 관련해 반대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고 주민대책위가 구성"되는 등 여러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대해 그간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사저와 관련해 대규모 간담회를 개최하지 못한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미안함을 전달했다.

또한, 그간 사저와 관련 해서는 여



러 가지 이유로 지자체와 사전에 의논하지 않는다 사저 역시 개인 재산이기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만 할 뿐 사실상 지자체에서는 더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시장은 '대통령 사저로 인해 도로 등 특혜성 오해소지가 있는

개발 행위는 하지 말아달라는 청와대 요구 사항을 여러 차례 전달 받은 바 있어 현 시점에서 정치적인 사항으로 연결될 소지도 있을 뿐더러 공개적으로 어떤 제안을 하기에는 여러 어려운 요소가 있다 다만, 주민이 불편함이 있다면 대통령 사저와 상관없이 해결 해야 하는 것으로 불편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을 제안해 줄 것을 부탁했다.

주민대책위 및 사회단체에서는 사저 인근 마을 진입 도로 확장, 주차장 조성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요구에 대해 시에서 시민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을 약속했으며, 향후 전체 하북면 발전계획에 대하여는 17개 사회단체 및 비상대책위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도 함께한 자리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고려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평산마을 주민들로 제한하여 착공전에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돌이켜보니 하북면 주민대표들도 초청해 폭넓은 소통을 하는 것이 좋았을 것 같았다"면서 유감을 표명하고,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주민들의 불편과 갈등을 원치 않으며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경호처는 경호시설 건축관련 주민들과 적극 소통·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북면 사저 건립 비상대책위원회는 활동을 중단하고 그간에 있었던 사저건립 반대 행동에 대하여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로 갈등을 해소하는 자리가 되었으므로 차후 사저 관련 반대를 위한 행동을 하지 않는 등 원활한 사저 건립과 하북면 발전을 위해 상호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남궁영기기자

진주시, 신진주역세권 공동주택 시공사와 지역업체 참여 협약 체결

건설현장 지역업체 50% 이상 참여 협약



진주시와 신진주역세권 2지구 내 건설 예정인 공동주택의 2개 시공사가 지역건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시는 12일 오전 진주시청에서 조규일 시장과 ㈜우미건설, ㈜태영건설 등 2개 건설사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건설 현장 지역업체 50% 이상 참여'를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와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마련됐으며 시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관내 대형 공사 현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상생 협약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시공사는 신진주역세권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해 지역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등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

지역 건설장비, 자재, 생산제품 등 우선사용 ▲지역주민 근로자 사업장 우선 채용 등 지역업체 50% 이상 참여를 약속하고, 시는 이들 건설 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게 된다.

조규일 시장은 "지역에 건설을 하는 만큼 지역민에 동화(同化)된 사업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협력이 지역과 상생하는 대표 모델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에 참여한 우미건설과 태영건설은 각각 전남 및 경기도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로 우미건설은 신진주역세권 B-1블럭에 아파트 828세대, 태영건설은 B-2블럭에 아파트 810세대 건설을 계획 중에 있으며, 오는 6월 중 사업승인을 받은 후 10월 착공 및 분양 예정이다.

최광용기자

남해군 교통약자콜택시 교체차량 전달식

남해군은 10일 오전 교통약자 콜택시 교체 차량 1대를 남해군 장애인연합회에 전달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열린 이날 전달식에는 장충남 남해군수, 이주홍 남해군의회의장, 장홍이 남해군장애인연합회장 등 관계자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교통약자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와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2012년부터 남해군장애인연합회에 위탁하여 현재 차량 7대를 운행하고 있다.

장충남 군수는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교통약자콜택시는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이동 수단"이라며 "순차적으로 노후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홍이 남해군 장애인연합회 회장은 "교통약자 콜택시는 우리 장애인에게는 한 대의 차가 아니라 희망이므로 보다 좋은 교통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행상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은 우선 회원으로 등록한 후에 이용할 수 있다. 회원 등록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가

능하다. 이용요금은 관내 최대 2,000원, 경남도내는 시외버스 요금의 1.5배이며, 필요한 시간에 교통약자콜택시로 신청하면 된다.

강영훈기자

부산시, 시민주도로 온실가스 감축하는 저탄소 마을 16곳 선정

부산시가 시민주도형 참여와 마을공동체 자율적 삶의 방식 변화를 통해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토록 하는 「부산형 저탄소 마을」 1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산형 저탄소 마을사업은 산업부문보다 비용은 적게 들지만,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비산업부문 사업으로 마을주민 모두가 생활습관을 조금씩 개선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유도·지원하는 사업이다.

저탄소 마을로 선정되면 3년간 저탄소 생활 실천 사업을 위한 보조금과 마을활동가 지원을 받으며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한다. ▲1년 차에는 에너지 절감 목표 설정 및 기후변화 교육, 가구별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등의 주민 인식 변화 위주의 사업(보조금 2~3백만 원)을 ▲2년 차에는 건물, 단열, 보일러 청소, 절수설비, 고효율(LED) 조명 교체 등 효율 개선사업(보조금 4~5백만 원)을 ▲3년 차에는 주택 미니태양광 및 빗물 저류설치, 나무심기 등 탄소상쇄를 통한 탄소제로 사

업(보조금 6~7백만 원)을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선경아파트 ▲푸른바다아이코스생활교육센터 ▲성지문화원 ▲장산마루 작은도서관 ▲대리고개 초록마을 ▲안락뜨란채 1단지아파트 ▲신호원더하임아파트(이상 1년 차) ▲그린리더협약체제코맘 ▲영도벽산비치타운 ▲함지그린아파트 ▲마을발전협동조합 ▲청정마을 에코라운 ▲우일서브광안동동일스위트(이상 2년 차) ▲고분도리 행복마을 ▲경보이리시힐 당리아파트 ▲산리협동조합(이상 3년 차) 등 16곳이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53곳의 마을을 저탄소 마을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07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저탄소 마을 선정: (2016년) 5곳 (2017년) 12곳 (2018년) 11곳 (2019년) 13곳 (2020년) 12곳

특히, ▲남구 석포마을(대표 김명철) ▲사상구 학장삼성2차아파트(대표 김귀준) ▲기장군 한신그린코아아파트(대표 박홍은) 등 3곳은 3년간 사업을



완전한 이후에도 지속해서 저탄소 생활을 실천해 나가고 있어 마을주민들의 생활 습관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로 꼽히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저탄소 마을은 삶의 작은 방식을 변화해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사업"이라며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세대 삶의 터전인 지구를 지켜 후세에게 물려줄 수 있는 1석 3조 이상의 효과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울주군, 문수산 동원로얄듀크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지정

울주군보건소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간접 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문수산 동원로얄듀크 아파트를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 대하여 2분의 1이상 주민을 동의의 얻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울주군보건소에서는 단지 내에 금연아파트임을 알려주는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 금연 스티커를 부착했다.

8월 10일까지 3개월 동안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올해 8월 11일부터는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흡연자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금연 아파



트 지정으로 간접 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통영시, 역마리나 요트계류시설(능양항,진촌항) 조성사업

통영시는 2021년 05월 11일 사랑진촌항,능양항 역마리나 요트계류시설 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

도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역마리나 요트계류시설 조성 사업은 국내 섬 관광 및 해양레저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요트·보트가 주로 이용하는 섬과 육지를 연결하기 위해 관광 잠재력이 우수한 도서지역(사랑진촌항 등 7개항)에 요트계류시설을 조성하여 해양관광레저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2018년에 사업을 착수하여 2022년까지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역마리나 사업으로 처음 시행한 사랑권역(진촌항, 능양항) 요트계류시설 조성사업은 지난 2020년 7월에 착공되어 2021년 3월 말에 준공되어 관리·운영을 준비 중에 있다.

금번에 준공된 사랑권역을 시작으로



로 올해 착수 예정인 산양권역·육지권역·한산권역 역마리나 조성사업은 2022년까지 사업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이 완공되면 통영시는 해양레저관광의 허브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석주통영시장은 "2022년까지 도서지역 역마리나 요트계류시설

조성과 함께 2023년 통영시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이 완료되면 해양레저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른 신성장 동력산업 발전으로 주민소득 증대는 물론 해양레포츠 메카도시로서의 위상이 드높아질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강영훈기자

광주광역시, 국립5·18민주묘지 합동 참배

이용섭 시장, 간부, 시의원 등 50여 명 참여



광주광역시는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을 앞두고 13일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와 5·18구묘지를 참배했다.

이날 참배는 이용섭 시장, 김용집 시의회 의장, 시 간부, 시의회 의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5·18민주화운동추모탑에서 헌화, 분향, 경례,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

이 시장은 참배에 앞서 방명록에 '민주와 인권, 나눔과 연대의 오월정신을 더욱 계승, 발전시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제2묘역과 5·18구묘지를 찾아 5·18유공자와 민족·민주열사의 묘를 참배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자치구와 산하기관은 자체적으로 참배를 실시했다.

이용섭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의 참여인원이 축소되는 등 아쉬운 점이 있지만, 온라인 추모관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최대한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5·18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의 해로 미안마 학살, 아시안 혐오범죄 등으로 전 세계가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는 현 상황에서 광주의 5·18정신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는 중심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윤/기자

장흥군, 미래의 유망주 드론, 행정에까지 눈길

장흥군, 2021년 공공분야 드론 조종 인력 양성사업 공모 선정



장흥군은 공무원의 드론 운용 능력 향상을 위해 공공분야 드론 조종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공공분야 드론 조종 인력 양성사업'에 조종자 교육 대상 산림분야로 2명이 선정되어 전문 인력 확보가 가능해졌다.

공공분야 드론 조종 인력 양성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분야에서 드론 활용도를 제고하고 드론 운용 능력 및 현장 업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행정업무가 증가하는 추세로, 장흥군은 보유하고 있는 3대의 드론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응모한 결과 올해 처음으로 전문 인력 양성사업에 선정됐다.

대상자는 지난 4월부터 3주 과정의 드론전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드론자격증을 취득 후 산림 전 분야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한 업무 능력을 키우는 임무 특화교육까지 이뤄진다.

임무 특화교육은 전통적인 공공업무와 드론이라는 다재다능한 업무수단 간 융합을 통해 효과적·효율적 업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산림분야는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해와 산지 관리 및 나무 심기, 숲 가꾸기, 벌채 등 산림경영에 드론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드론과 관련된 국비사업에 계속 도전하여 수자원관리, 구조물점검, 지적조사, 해양안전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행정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민간까지 확대함으로써 일반 국민들도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드론 교육도 받게 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번 교육이 드론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실습할 좋은 기회로, 공공분야에서 드론을 운용하는 인력의 현장 운용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장길/기자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 코로나 신속 차단해 지역경제 살리자

방역 총력도민 이동 자제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 지도 강화 당부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는 11일 "코로나19 방역대책을 물 썰 틈 없이 추진, 집단감염을 빠른 시간에 차단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지역감염 확산 차단 관건은 속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안타깝게도 집단발생이 고층, 여수에서 발생했고, 고층이 주출한 상태지만 순천에서 확산하고 있어, 여수와 순천에 차단방역 활동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는 한번 발생하면 그 고리를 끊기 어렵는데다 무증상 전파가 많아 확산 차단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도민의 외출 및 이동 자제,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 준수 지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사적 모임이 6인까지 가능한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기간을 2주 연장했는데, 4인에서 6인으로 확대한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있다"며 "집단감염을 빠른 시간에 차단, 방역과 경제활동의 조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적극 노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 성과를 달성한 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도민 제일주의 행정을 통해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 도민 시책을 발굴해온 결과 좋은 정책이 줄줄이 나온 결과"라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응하면 시책이 단편적인 수밖에 없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우므로 앞으로도 평소

에 도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질적 시책 발굴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에너지 전환시대를 맞아 수소경제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므로 재생에너지를 통한 '그린수소 경제'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며 "해상풍력 선도국가인 덴마크의 '인공 에너지섬(Energy Island)' 계획

을 거울삼아, 전남이 선점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과 지역에 많이 있는 섬을 연계해 그린수소 생산저장 시설을 구축, 그린수소의 중심지로 육성하자"고 말했다. 덴마크 인공 에너지섬은 37조 8천억 원을 들여 덴마크 서쪽 북해 80km 해상에 에너지 저장시설, 에너지 변환시설, 운송항만 등을 갖춘 계획이다. 완공 목표는 2030~2033년이다.

특히 2022년 개교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수소 관련 학과와 연계해 R&D 촉진 및 연관산업 유치 등을 추진하는 대단위 수소프로젝트 계획을 세워 정부에 국고지원을 건의하고, 대선공약에도 반영토록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NHN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는 전남의 미래 전략적인 산업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4차 산업혁명의 총화로서 집적화단지로 육성, 대통령이 강조한 '디지털 뉴딜' 산업의 핵심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만/기자

여수시도시관리공단, 환경미화직 등 19명 채용 · · · 원서접수 5월 31일까지

기능직 1명, 공무원 1명, 환경미화직 14명, 기간제 3명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기능직, 공무원, 환경미화직, 기간제 직원 총 19명을 신규 채용한다.

채용분야는 기능직 1명(환경 1), 공무원 1명(시설물관리원/정소원), 환경미화직(일반경정채용) 8명, 환경미화직(보훈대상자특별채용) 3명, 환경미화직(장애인특별채용) 3명, 기간제 3명(당직전담원 2, 백야항 주차장관리원 1)으로 총 19명이다.

이번 채용은 공개경쟁채용 및 제한 경쟁 특별채용으로 실시한다. 단, 환경미화직 보훈대상자특별채용은 보훈청을 통해 추천된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장애인특별채용 또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 경쟁채용이다.

응시 자격은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만18세 이

상 60세 미만이며,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환경미화원은 만 20세이상 50세이하로서 공고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해서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또는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내에 주민등록 등재기간의 합이 3년 이상인 자이면 응시가능하다.

기간제는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만 60세이상 65세이하이며,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2021년 5월 22일부터 5월 31일 18시까지이며, 여수시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에서 인터넷 접수로 실시한다.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전형 절차는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되며, 환경미화직



은 체력시험도 실시한다. 단, 기간제의 경우 서류 심사후 면접시험만 실시한다.

이남출/기자

진도군, 물김 위판액 904억원 달성...전국 1위

지난해 보다 생산량 31% 상승, 지속적인 김 품질 향상 위해 다양한 지원 실시

진도군이 2021년산 물김 생산을 종료한 결과 총 8만8,879톤, 904억원 위판액을 기록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6만7,000여톤에 비해 생산량은 31% 상승했으며, 생산금액은 756억원보다 19% 증가해 전국 생산량의 25%를 차지했다.

진도군의 김 양식 면적은 479어가, 1만4,810ha 면적에 19만2,569척으로 지난해 10월 물김 첫 위판을 시작했으며, 5월 초순 위판을 종료했다.

올해 1월 초순 중국에서 발생한 팬생이모자반이 김 양식장에 대량 유입해 막대한 피해를 입혀 작황 부진으로 어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어업인들의 꾸준한 어장관리로 후반기 들어 김 생산량이 회복하고, 물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생산량과 위판 가격도 크게 증가했다.

진도군은 2021년산 물김 위판이 종료됨에 따라 생산이 종료된 어장 내 김 양식시설물이 조기 철거될 수 있도록 지도에 나서고 있다.

특히 고품질의 원초를 생산하고 신제품 개발을 위해 어장별 해양환경 특성 조사와 김 양식어업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을 체결, 어업인 현장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김 품질 향상과 생산량 증가를 위해 양식어장 재배치 사업과 ▲육상 채묘 배양장 ▲김 가공 ▲김 냉동방 저온



저장 시설 등을 지원했다"며 "무면허 불법 양식시설과 어업권 정비 작업 등에 수산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 김은 적조가 없는 청

정해역에서 생산돼 게르마늄 등 각종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고 맛과 향이 독특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강양호/기자

담양군, 세계 금연의 날 맞아 캠페인 '담배는 노담, 나는 노담' 주간 운영

담양군이 오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두 달간 지역사회 중심인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캠페인 '담배는 노담(No담), 나는 노담(No담)'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금연 캠페인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12개소를 중심으로 학교별 등교시간에 맞춰 등굣길 캠페인, 흡연예방교육 전문 강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흡연 및 음주폐해 예방교육 등을 통해 흡연의 유해성과 금연의 필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군은 이번 캠페인 주간 운영을 통해 청소년 흡연 경험률 및 흡연율 감소 등 청소년을 조기 흡연으로부터 차단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금연 환경조성 캠페인을 확대 운영해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증진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김순복 보건소장은 "전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생애에서 흡연을 시작할 확률이 가장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예방사

업을 통해 평생 흡연자로의 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맞춤형 금연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니,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금연에 하루빨리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홍관/기자

전주시, '코로나19 위기 극복' 추경예산 352억 편성

시,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총 352억 원 규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의회 제출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실직·폐업 등으로 생계위기에 봉착한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352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일자리 및 생활안정, 코로나19 등 재난·재해 대응 등을 중심으로 이 같은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전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2조371억 원에 대비해 1.73%가 증액된 금액으로,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전주시 살림살이는 2조 723억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분야의 경우 돼지카드(전주사랑상품권) 운영과 소상공인 특별보증 사업에 57억 원이 반영됐다.

일자리 및 생활안정 지원 분야에

는 희망근로 지원사업 49억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 46억 원, 일 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12억 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보조사업 3억30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과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파견,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등에 22억 원이 책정됐다.

코로나19 등 재난·재해 대응 분야에는 예방접종센터 시설 구축에 5억 원이,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에 4억 원이, 여름·겨울철 재난 대응 등 재난관리기금 조성에 85억 원이 반영됐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날부터 20일까지 9일간 개최되는 제3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는 예산(안)이 의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자금을 신속히 투입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사업들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및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완주형 뉴딜, '추가 발굴+공모 대응' 쌍끌이 전략 나선다

기재부, 지역균형 뉴딜 공모에 가점 차등화 지침 각 부처에 통보



완주군이 지역 발전과 비전 창조를 위한 '완주형 뉴딜' 추진을 본격화하기로 하고 신규사업 추가 발굴과 지역균형 뉴딜 공모 대응에 적극 나서는 등 쌍끌이 전략에 돌입한다.

11일 완주군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 중이며, 지역균형뉴딜에만 73조3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지난해 K-뉴딜 성공을 위한 지자체 토론회와 정책 특강을 가진 데 이어 완주형 뉴딜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개 분야 48개 세부사업에 국비 5천34억 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완주군은 이들 사업 외에 신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지역균형 뉴딜 관련 공모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완주형 뉴딜'을 본격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 현안이 '전북형 뉴딜' 주요 사업과 지역균형 뉴딜 대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화를 본격화한다는 방침 아래 분과별 태스크포스(TF) 운영과 전문가 자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지역균형 뉴딜 공모사업에 지역 발전도에 따라 가점을 차등화해 반영하는 내용의 예산 집행 지침을 올해 초 각 부처에

통보한 만큼 '지역균형뉴딜' 관련 공모에도 입체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역균형 뉴딜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균형발전 지표 활용하기로 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전북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기회 요인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완주군의 전략이다.

완주군은 전문가와 기업 등이 참여하는 '범(汎)완주 뉴딜 TF'를 확대 운영하고, 기존 발굴사업의 내실화와 신규 사업 구체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다음 달까지 전북도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전북형 뉴딜과 대선공약 대표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완주군은 또 올 하반기부터 2023년 신규 뉴딜사업 발굴에 착수하는 등 신규 국가예산 확보사업 발굴과 연계해 효율성을 높여가기로 했다.

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완주형 뉴딜의 본격 추진을 위해선 정부와 전북도의 방향을 예의주시하며 국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단계별로 연계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방침”이라며 “지역 현안이 올해 전북형 뉴딜과 대선공약 대표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남원시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신규마을 10개소 선정(50억 지원)

신규지구 10개소 선정, 22년까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계획



전북 남원시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29개 마을 완료)하는 2021년 마을만들기 사업에 10개 마을이 선정되어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신규마을 공모를 진행해 심사를 거쳐 최종 10개소 마을을 선정했다.

2021년 선정된 신규지구는 주천 행정마을, 주생 유매마을, 대강 강석마을·입암마을, 대산 감성마을, 덕과 사곡마을, 인월 외건마을, 아영 청계마을·의지마을, 도통 갈치마을 등이다.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농촌의 지속 발전 가능한 모델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마을단위의 기초공동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마을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자원의 특성을 기반으로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모(시자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선정된 마을은 사업기간 2년의 기간 동안 5

억원 이내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사업 내용으로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과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사업, 마을 주민들의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으로 구성되고, 참여 마을은 농촌 현장포럼, 생생마을 기초단계, 마을 리더 교육 등 농촌지역개발 관련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남원시는 소멸되어 가는 지역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등 농촌지역의 공동체의 본 모습을 찾고 공동체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농촌의 특성에 맞는 발전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마을을 만들어 가기위해 직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남원시민이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전국 최고의 마을만들기 모델 발굴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남원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광한루원의 봄

바래봉 철쭉

춘천시, 카누 유람하며 춘천 문화유산 배운다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일환 '춘천의 속살을 보다' 추진

카누 유람을 하며 춘천의 문화 유산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춘천시정부는 오는 15일부터 6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춘천의 속살을 보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춘천의 속살을 보다'는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춘천의 역사 인물과 유적의 흔적을 찾아가는 사업이다. 호반의 카누 유람을 통해 우리 지역 선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이를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넓히는 기회의 장이다. 특히 키크카누를 통해 비장애인은 물론 장애인도 함께 향유하고 공유하는 역사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다. 1회차 주제는 '의암 호수에 담긴 역사 이야기'로, 주요 코스는 소양 1

교, 의암호 폐교각이다. 이후 2회차는 '춘천팔경과 유교문화 탐방(춘천팔경 고산, 토금강)' 3회차 '번개시장 야채 팔러 가던 길(소양로 뱃터, 금산리 눈높나무)' 4회차 '신비의 섬을 찾아서(근화동 선착장, 신비의 섬, 공지천 입구)' 5회차 '춘천의 아마존 하중도 셋강 탐사(하중도 셋강, 수변생태공원)'다. 시정부 관계자는 "아름다운 풍경과 우수한 역사문화를 카누를 타면서 체험하고 공감하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만의 자원을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부여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역화폐로 지급

여성농업인 편의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부여군이 여성농업인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문화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연간 20만원씩을 사용할 수 있는 행복카드 발급과 배부를 개시했다. 올해 부여군 행복카드 발급대상은 8,300명으로 군은 이를 위해 도비 포함 모두 17억원을 투입했다. 특히, 군은 전국에서는 최초로 기존 농업에서 행복카드를 발급했던 방식에서 금년부터는 부여군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로 지급방식을 변경하고, 읍·면을 통해 행복카드를 배부하여 여성농업인 편의성 도모와 지역경제 안정화에도 기여할 계획이

다. 행복카드 사용처는 병의원 및 유흥업소 등 일부 업소를 제외한 모든 굿뜨래페이 가맹점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행복카드 배부가 완료된 이달 11일부터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농가의 어려움이 큰 요즘, 행복바우처 사업이 굿뜨래 페이로 지급됨에 따라 행복카드 발급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여성농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유성구, 혼자 그리고 함께 즐기는 정원생활 "1인가구 커뮤니티가든" 운영

코로나 19 장기화로 외로움해소 등 1인가구의 정서적 지원

혼자지만 함께어서 즐거운 정원생활

1인가구 커뮤니티가든 프로젝트에 함께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garden

- 모집기간** | 2021년 5월10일~ 5월21일 (선착순 20명)
- 모집대상** | 유성구에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 누구나
- 활동내용** | 2021년 5월~11월까지 유성구 커뮤니티 가든(하기동)에서 다양한 활동 함께 하기 (텃밭활동, 가드닝, 목공, 소셜 다이닝, 공유바구니 등)
- 접수** | 문자접수/ 로컬푸드교육센터 품 협동조합 (010-6670-0496/ 010-2309-8030)

유성구 로컬푸드교육센터 품

대전 유성구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우울감, 외로움 해소 등 1인가구의 정서적 지원을 위해 관내 1인가구를 대상으로 '1인가구 커뮤니티가든'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커뮤니티가든은 하기동 324번지(2,893㎡ 중 약 330㎡)에 조성됐으며, 1인가구를 대상으로 텃밭공동체 활동을 통해 이웃간·세대간 소통과 교류, 우울감 해소 등 1인가구의 육체적·정서적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텃밭·공동정원 가꾸기, 가든·바비큐파티, 공유 농산물

전달 등 체험·사회공헌·친목활동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유성구에 주소를 둔 만 64세 이하의 1인가구 또는 예비 1인가구 2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며 청년 1인가구는 우대대상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1인가구 커뮤니티가든 사업을 통해 코로나 19로 지친 주민에게 위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문자로 가능하다.

고정화/기자

강원 역사문화권 설정 논의 본격화

강원지역 고대 역사문화권 설정을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강원도는 강원학연구원 주관으로 '강원지역 고대 역사문화권 설정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강원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제정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문화권정비법)」의 6개 역사문화권에 포함되지 못한 강원지역의 고대 역사문화권 설정을 위해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의 논의를 본격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는 △ 역사문화권 정비사업과 강원도의 대응 방향(김창겸, 김천대학교 교수), △ 강원도 역사문화권 설정 용어(김택균, 세경대학교 명예교수), △ 고고자료를 통해 본 역사문화권의 시공간적 양상(최종모,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등이다. 이어 유재춘 강원대학교 교수(강원학연구원장)를 좌장으로 고고·역사학자, 정치인, 언론인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강원지역 고대 역사문화권의 설정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포럼을 통해 「역사문화권정비법」에 강원지역을 포괄하는 문화권이 명시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강원도 고대 역사문화권의 위상을 확립하고 새로운 비전을 열어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이동원/기자

강원지역 고대 역사문화권 설정을 위한 전문가포럼

2021. 05. 12
수요일 오후 2시
강원연구원 1층 대회의실

주최/주관 강원도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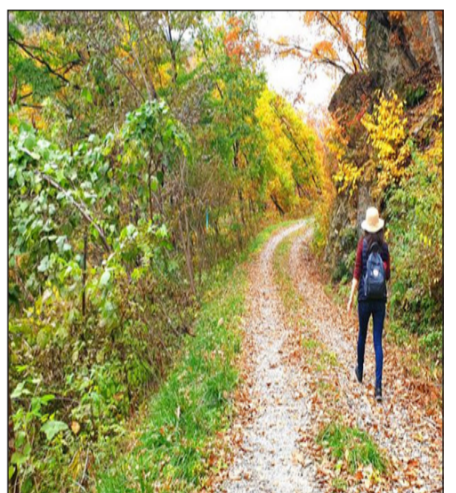
원주시, 명품 도보 여행길, 치악산 둘레길 개통!

사업비 71억 원 투입, 11개 코스 139.2km

원주 치악산 둘레길이 5년여에 걸친 조성 공사를 마치고 오는 20일 11개 코스 139.2km 전 구간이 개통된다. 치악산 둘레길은 등산로, 셋길, 임도, 돌길, 옛길, 마을길 등 기존의 길을 연결하는 한편, 새로운 길을 내고 다듬어 치악산 자락을 걸을 수 있도록 조성한 명품 도보여행길이다. 원주시,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횡성군, 영월군이 협력해 치악산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 수 있는 코스로 조성됐으며, 사업비 71억 원이 투입됐다. 특히, 최대한 수평형·무장애 숲길

되도록 하는 동시에 마을길을 연결해 활용성과 편의성을 높여 날로 늘어나는 도보 여행객과 관광객은 물론 원주 시민의 건강과 힐링을 위한 명품 둘레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장목 원주시장은 "생태, 문화, 경관, 휴양 등 다양한 테마가 있는 탐방로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불거리와 길거리를 제공하고, 천리 굽이길과 원주 소금산출렁다리, 레일바이크, 뮤지엄산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금산군, 금산정수장·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사 현장 점검

최영규 부군수, 미비점 보완 및 사업 효율성 논의

금산군은 지난 11일 환경기초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금산정수장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장을 방문했다. 이날 최영규 부군수 및 담당자들이 함께 현장을 시찰하고 미비점을 보완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금산정수장은 수요량 증가 및 고가동률 운영에 대비하고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90억 원을 투입해 막여과등을 신축하고 있으며 오는 5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막여과 운영 예비계열 확보로 한파 등 피크 수요 시 안정적 용수공급이 가능해진다.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의 경우 처리용량을 늘려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2022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199억4000만 원이 투입된다. 최영규 부군수는 "환경기초시설이

주민 삶의 질을 한층 높여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원호/기자

오산장애인종합복지관-네네치킨 시청점, 가정의 달맞이 치킨 100마리 후원



오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계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네네치킨 오산시청점에서 지역사회 내 장애인들을 위해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네네치킨 오산시청점은 지난 해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치킨 20마리를 오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유기적 관계를 맺어왔으며, 특히 이번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더 많은 분들께 나눠주고자 총 100마리를 오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전달했다.

이날 후원받은 치킨은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및 유관기관 100가구에 비대면으로 전달됐고, 후원물품을 전달받은 장애인 가정은 "아이들과 함께 치킨을 너무 맛있게 먹었다. 오산장애인종합복지관과 네네치킨 사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네네치킨 오산시청점 오동환 사장은 "치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웃음넘치는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치킨을 먹으면서 가족끼리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웠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남주/기자

고창군청 '여자유도부', 2021 양구평화컵 유도대회 맹활약



고창군청 소속 유도선수단이 지난 8~10일 강원도 양구군 양구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2021 양구평화컵 유도대회에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며 4체급 입상 성과를 거뒀다.

선수단은 개인전 -52kg급에 출전한 하주희 선수와 -70kg급 이예원 선수가 각각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어 -48kg급 박은이 선수가 은메달, +78kg급 엄다현 선수가 동메달을 목에 걸며 여자유도 최강팀의 면모를 과시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모든 대회가 취소되면서 2019년 12월 이후 1년6개월만에 열린 대회인 만큼 더욱 값진 메달이다.

고창군청 여자유도부 흥기문 경기지도자는 "이번 경기에서 선전하면서 선수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어 앞으로도 더욱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욱 멋진 경기를 위해 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현재 흥기문 경기지도자와 선수 6명으로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체육 활동을 위해 올해 초 준공된 '전지훈련트레이닝센터'에서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이번 대회가 끝난 후에도 7월 개최 예정인 전국대회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내기 위해 훈련에 힘을 기울인다.

김현태/기자

광주광역시, 가정의 달 맞아 지역사회 나눔 손길 잇따라

이용섭 시장 "지역사회 따뜻한 나눔의 손길, 시민에게 큰 힘"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소외계층을 향한 지역사회 나눔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12일 오전 시청 접견실에서 ㈜광주신세계, (유)로크스카이와 기부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광주신세계는 '장애인 가족과 함께하는 세상'을 만든다'라는 캠페인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 1000만원을 저소득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해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고 광주장애인부모연대에 전달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신세계, 광주시 등이 참여한 이 캠페인은 5월 한 달간 진행되고 있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사는 "5월을 맞아 장애인 가족들도 따뜻한 가정의 달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기부의사를 밝혔다.

서구에 소재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유)로크스카이는 이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KF-AD마스크 10만장을 광주시에 기부했다.

광주시는 기부 받은 마스크를 방역활동 및 코로나19 소외계층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광주시지원봉사센터에 전달했다.

정창호 (유)로크스카이 대표는 "최근 지역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여 코로나19 감염예방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마스크를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광주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응원의 손길에 힘입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빈틈없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상주시, 상주사랑 손글씨 공모전 시상

상주시에서 5월 12일 시민의방에서 상주사랑 손글씨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상식을 축소하여 금상 수상자만 직접 시상하였다.

서체(글씨)는 국민 누구나 사용하고 많이 접하는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 요소로 우리시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거주지·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공모한 결과, 213명 360점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예비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18점을 대상으로 독창성, 심미성, 활용성 3개 평가항목에 따

라 수상작 순위를 결정했다.

최종심사결과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4명의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금상 10만원, 은상 50만원, 동상 각 10만원의 상금과 함께 수여하였다. 한편, 금상 수상작은 상주시 전용서체로 개발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시 전용서체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상주사랑 손글씨 공모전에 소중한 작품을 응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주시 전용서체를 개발하여 상주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주)맥키스컴퍼니로부터 장학금 기탁 받아

지역발전과 인재육성 협약에 따라.. 지역 내 판매된 상품 적립금 기탁

(재)계룡시애향장학회는 지난 11일 ㈜맥키스컴퍼니로부터 장학금 1백 9십여 만원을 기탁 받았다고 전했다.

이날 기탁 받은 장학금은 2019년 체결된 협약에 따라 한 해 동안 ㈜맥키스컴퍼니의 주력제품인 '이제우린'이 계룡시 내 일반음식점에서 판매될 때마다 1병당 5원씩 적립된 판매금으로 마련됐다.

(재)계룡시애향장학회와 ㈜맥키스컴퍼니는 지역발전과 인재육성을 위해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 동안 적립금 3천 5백만원을 목표로 계룡시에서 판매되는 '이제우린' 판매

량에 따른 수익금 일부를 매년 기탁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맥키스컴퍼니 조용래 회장은 "향토기업으로서 계룡시 인재육성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기업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꿈과 끼를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기부 배경을 전했다.

최홍묵 이사장(계룡시장)은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에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주신 장학금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소중히 쓰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성북구 석관동 자율방재단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수상

주민 참여 마을활동의 큰 결실

성북구 석관동 자율방재단이 2021년 '코로나 19 대응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방역 활동 참여 민간인(또는 단체)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저감시키고 사기진작과 그간의 노력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 수여되는 상이다.

석관동 자율방재단은 2011년 창단 이래 37명의 단원이 재난취약 위험 시설물에 대한 예찰활동, 풍수해 대비 빗물받이 청소, 안전점검의 날 및 골목길 대청소 참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봉사활동을 쉼 없이 이어왔다.

또한 매주 목요일을 "석관동 자율방역의 날"로 지정,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61회에 걸쳐 연 549명이

동참해 관내 전역 방역활동을 해왔다. 방역활동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4명씩 2개조로 나눠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관내 이동인구가 많은 석계음식문화의 거리,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교회, 공원 등을 찾아가 바다, 문 손잡이, 난간 등에 소독제를 분사하며 꼼꼼하게 방역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감 석관동 자율방재단장은 "표창 수상에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관내 전역을 누비며 방역소독 활동 펼침으로써 석관동 주민들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장벽을 이겨내겠다"고 다짐했다.

이대현 석관동장은 "그간 석관동 자율방재단은 동 주민센터와 함께 마을 안전 보안관 역할을 해왔으며, 이번 행정안전부장관상은 성북구



나아가 서울시의 주민 참여 마을 활동의 큰 결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동 주민센터에서도 주민들의 마을 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원/기자

GS건설, '봉담자이 라피네' 14일(금) 견본주택 오픈

◆ 화성 동화지구 A-3BL, 최고 25층, 아파트 8개 동, 총 750세대 규모, 전용 59~109㎡

◆ 5월 24일 특별공급, 25일 1순위, 26일 1순위 기타 청약...사이버 견본주택 운영

◆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에 도보통학 학군과 준비된 인프라...활발한 인근 개발사업 호재

GS건설이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지구 A-3블록에 들어서는 '봉담자이 라피네'의 분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봉담자이 라피네는 지상 최고 25층의 아파트 8개 동, 총 750가구다. 전용면적별로는 ▲59㎡(48가구) ▲84㎡(671가구) ▲100㎡(24가구) ▲109㎡(7가구/펜트하우스) 등으로 구성된다.

봉담자이 라피네가 들어서는 동화지구(2,420가구)를 중심으로 이

미 조성이 완료된 와우지구(8,282가구), 봉담1지구(8,988가구), 기안동(4,521가구), 수영리 권역(2,704가구), 현재 입주와 분양이 완료된 봉담2지구(1만985가구) 그리고 분양 준비 중인 내리지구(4,034가구)와 계획중인 효행지구(1만1,794가구)를 포함하면 5만3,728가구의 대규모 주거타운으로 변화 중이다.

봉담자이 라피네가 속한 동화지구는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이 갖춰져 있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봉담 IC가 가까워 수도권 전역으로의 진출입이 편리하고 과천-봉담 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과 서울 도심 접근이 용이하다. 여기에 강남역과 사당역, 금정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과 마을버스 다수 노선이 운영되고 있어 지역 내외 이동이 편리하다. 특히 단지 반

경 2.5km 거리에 수인분당선 오목천역이 있어 이를 통해 인천이나 수원, 분당, 강남구청, 청량리역 등으로 한번에 이동이 가능하다.

봉담자이 라피네는 봉담택지지구 개발을 통해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다.

단지 동남쪽 인근 도로거리와 와우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운영중이고 서쪽 인근에 와우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이미 교육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 동화지구 내 초·고교 부지가 계획돼 있어 향후 초중고교 모두 도보통학이 가능해지는 만큼 교육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더하여 장안대, 협성대, 수원대 등 많은 대학들이 있어 풍부한 배후수요까지 갖추고 있다.

또 봉담자이 라피네는 단지 우측으로 이마트 봉담점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단지 반경 약 1.5Km 내

CGV, 하나로마트 봉담점 및 봉담 중심상업지구가 있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효행로를 통해 수원시까지 차로 20분대면 진입이 가능해 쇼핑과 문화생활 인프라를 입주 즉시 누릴 수 있다.

봉담자이 라피네는 직주근접 특징도 갖췄다. 단지 북동쪽의 수원산업단지를 포함해 동탄신도시 산업단지, 현대기아차남양기술연구소 등 남양읍 방면에 소재한 중소산단들이 있으며, 차로 10분~30분이면 진입이 가능하다.

특히, 봉담자이 라피네는 GS건설이 최근 소비자의 니즈와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형을 적용해 눈길을 끌고 있다.

▲ 서비스면적의 극대화를 꾀한 5Bay 4면 개방형(일부 타입) ▲ 테라스 특화세대(일부 타입) ▲ 아파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자이 브랜드의 복층형 테라스 주택형 ▲ 효율성을 높인 LDK(Living-Dining-Kitchen) 구조 ▲ 최상층에서 누릴 수 있는 펜트하우스 등 기존과 차별화된 평면 설계로 입주자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주거가 가능하다.

또한, 국내최초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인 시스클라인(유상흡선)을 비롯해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자이 앱 솔루션, 자이 스마트홈 시스템, 자이 스마트패스, 어린이 놀이터 미세먼지 알람 보안등, 전력회생형 엘리베이터, 무인택배 시스템 등 입주민들의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고려한 다양한 특화 상품이 적용 예정이다.

봉담자이 라피네 분양일정은 5월 24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월 25일(화) 해당지역 1순위, 26일(수) 기타지역 1순위, 27일(목) 2순위 순

으로 진행된다. 당첨자발표는 6월 2일(수)이며, 정당계약은 6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5일간 진행된다.

GS건설 관계자는 "대규모 주거타운으로 변모 중인 봉담에서 처음 공급되는 '자이' 아파트이자 인근에 갖춰진 인프라로 인해 수요자들의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리딩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봉담자이 라피네 견본주택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대체 운영될 예정이며, 당첨자에 한해 사전 예약 후 관람이 허용된다.

입주는 2023년 10월 예정이다.
분양문의 : 1644-7742
홈페이지 : <http://bongdam-xi-raffiner.com>

김남주기자

